

繼續的·現時情報를 規定하는 測定基準

—賣却時價主義의 提言을 中心으로—

金 亨 柱

<目 次>

- I. 序 論
- II. 市場行動과 會計情報
- III. 會計情報의 要件과 그 測定基準
- IV. 物價水準變動과 利益測定
- V. 結 論

I. 序 論

最近의 會計學動向은 종래의 取得原價主義, 實現主義會計에서 벗어 날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方法論을 바탕으로 理論의 再構成을 꾀하려고 苦惱하고 있음을 사실상 엿볼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經濟社會에서 피하기 어려운 「크리-핑·인프레」(creeping inflation)로 인한 物價水準의 變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會計學의 領域으로 끌어드려 有用한 情報로서의 傳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論議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論議의 초점은 傳統의인 會計學의 制度面에서 눈을 돌려 企業을 意思決定의 「넷트·워크」로 여기는 多數의 參加者들이 行動하는데 필요로 하는 會計情報「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會計理論의 展開에 따르는 接近方法에 주목하여 보면 그 傾向은 종래의 個別科學에서 볼 수 있었던 閉鎖的인 方法에 의거한 各個別科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관련된 諸科學의 성과를 서로 活用할 수 있는 「인터·디시프린」(inter-discipline)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9回卒業生

現在 日本早稻田大學大學院 博士課程修學 會計學專攻

社會科學의 부문에서는 그 傾向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行動科學, 情報理論의 影響이 크게 미치고 있는데 會計學의 부문에서도 이 傾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이 小稿에서 살펴 볼려고 하는 「첼머스」(R. J. Chambers) 理論은 會計에 있어서 그러한 傾向을 나타내는 典型的인 새 構想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會計專門家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첼머스」教授는 「사이버네틱스」,⁽²⁾ 行動科學, 情報理論을 바탕으로 隣接科學의 影響에 따른 現在社會에 있어서 行動主體의 활동상황을 分析하므로써 전통적인 會計學의 缺陷을 지적함과 아울러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의 轉換을 바라며 會計情報 「시스템」에 대하여 特異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런데 傳統的인 會計學에서 會計情報 「시스템」으로 轉換을 바라기 위해 會計情報의 성격을 고려하려면 그 情報의 役割이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가를 論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前提가 되는 것은 會計情報의 有用성이 문제로 하는 一般社會의 經濟環境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과거의 靜態的會計論이라고 불리워진 財產法思想이 대두되어 時價에 의한 會計情報를 요청한 것은 당시의 經濟環境에서 債權者保護를 위해 그 필요성이 社會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資本主義경제의 발전에 따라 動態的 會計論으로 바뀌어져 그것이 「取得原價」에 의한 評價로 옮겨진 것은 그나름대로 時代的인 經濟環境의 狀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經濟環境의 變化 특히 貨幣價値의 현저한 변동에 관련하여 取得原價에 의한 會計情報의 信賴性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다시 時價評價論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會計機構改善의 構想은 근래 적지않게 具體化되고 있으나 한마디로 會計機構의 改善이라고는 하지만 여하한 接近方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것의 展開方向이 달라지게 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一般的으로 時價論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構想에 따라 多樣하고, 또한 會計의 理論構成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方向으로 分岐되고 있다. 그

(1)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pp. 63~71.

(2) 「사이버네틱스」는 원래 通信工學에서 由來된 것으로 그 基本概念은 情報(information)와 피드·백(feed-back)을 의미한다. 「피드·백」은 機械를 豫定된 行動에 依해서가 아니라 實際의 行動에 따라서 制御하는 機構이다. 이와같은 基本概念을 단지 機械에만 適用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나 動物의 側面 다시 말하면 社會等의 組織體의 面에 까지 擴張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이버네틱스 概念이기도 하다. 크루스(R. Cruse)는 「첼머스」理論을 다음과 같이 評하고있다. 「첼머스」는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비어(Beer)와 위너(N. Wiener)의 理論을 參考로 하여 會計의 思考를 再編成하고 會計研究의 새로운 方向을 確立하려한다고. Rex. Cruse, "Book Reviews", The Accounting Review, Lan. 1967, pp. 207~208.

典型的인 例로는 「에드워즈·벨」(E.O. Edwards & P.W. Bell)의 構想과 챔버스의 구상은 출발점부터 對照的인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음을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注目하여 보기로 하자.

「에드워즈·벨」理論은 經營者의 意思決定을 위한 情報제공을 第一義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外部利用者에게도 修正, 擴張한다는 會計目的觀에서 출발하여⁽³⁾ 費用·收益의 對應方式에 따르는 期間的인 思考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 測定基準으로는 企業의 努力을 나타내는 取得原價 또는 「커런트·코스트」(current cost)⁽⁴⁾라고 하는 購入市場價格基準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成果에 관련되는 「리세일·프라이스」(resale price)⁽⁵⁾라고 하는 販賣市場價格基準은 合理性이 없다는 이유로 採用하지 아니한다. 이 점은 「챔버스」理論과 상반되는 흥미있는 領域이라고 생각된다.

이 點에 注目하면서 本小稿에서는 經營者 및 外部利用者를 포함한 모든 參加者集團의 市場行動을 위한 情報提供을 會計目的으로 하는 동시에 時點的인 財務狀態를 重視하며 賣却時價主義를 提言하고 있는 「챔버스」理論을 中心으로 다른 理論과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會計情報의 本質을 行動과의 關係에서 規定하는 경우 그 行動이 市場經濟에서 무엇때문에 現時情報만을 요청하게 되는가를 理解한 後現時點的인 情報은 어떠한 要件을 具備하여야 하며 그 情報을 測定하기 위한 基準이 前提로 하는 企業觀에 있어서 提起되는 問題와 物價水準의 變動을 測定體系 안으로도 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再賣價格(resale price)을 測定基準으로 적용하게 되면 利益概念과의 關係에서 여하한 會計處理가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II. 市場行動과 會計情報

現行의 財務會計는 「貨幣單位의 安定性」(stability in the monetary unit)이라는 公準(postulate) 아래 모든 物價變動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點에서의 矛盾은

(3) E.O. Edwards & P.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1961) Fifth printing 1970, pp.1~6.

(4) Ibid., p.97.

에드워즈·벨에 의하면 커런트·코스트(current cost)란 「그 資產을 現在의 形態로 生産하기 위해 使用한 인풋(inpeet)를 現在 取得하기 위한 原價」라고 定義하였으며 機會原價(opportunity cost)란 「가령 資產을 企業의 外部에 對하여 即時로 얻을 수 있는 最高의 價格으로 賣却하였다고 한다면 現在實現할 수 있는 價値」라고 定義하고 있다.

피할 수 없겠으나 그것의 기본적인 特質은 資本回收計算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中核的인 기구는 實現主義에 의한 收益과 그것에 對應하는 取得原價에 의한 費用과의 차액인 期間利益의 결정이며 資產은 費用의 下位概念으로써 다만 費用을 認識하는 준비과정으로 여겨왔다.

이에따라 現行의 會計處理에 대하여는 改善問題가 제기되었고 그 改善에 관해서 언제나 論爭의 초점을 이루었던 것은 時價評價論의 導入이기도 하다. 1950 年代의 후반부터 美國에서 展開된 時價評價論은 經濟學的인 利益概念에의 접근이란 것이 큰 底流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現行會計上의 利益概念으로서의 결정적인 要因으로 되어 있는 「處分可能性」 「客觀性的 要請」⁽⁵⁾을 여하히 해석하는 것이 妥當한가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會計上의 문제를 解決하기 위하여 時價評價의 導入을 企業의 生産, 販賣활동에 따라 體系的으로 정리하며 「經濟의 變動을 그것이 생기는 대로 報告할 수 있도록 한다」⁽⁷⁾라는 會計機構를 구상하여 그후의 연구에 많은 貢獻을 한것으로는 「에드워즈·벨」의 共著를 예거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現在市場價値(present market value)의 概念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바로 곧 「딜렘머」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데서 市場價値에 있어서의 基礎概念이 分析되고⁽⁸⁾ 機會原價와 「커린트·코스트」가 實現可能利益(realizable profit)과 經營利益(business income)을 各各 전개하기 위하여 선택하여진다.

實現可能利益은 機會原價에 의해서 測定되어 지므로 「단지 그 企業이 短期的인 견지에서 操業하여 지는 것을 나타낸다」⁽⁹⁾는 것에 불과하며 企業의 現存生産過程을 바로 곧 變

(5) R.J.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1966, p. 92.

「첸버스」의 再賣價格은 調達에관 련된것이 아니라 轉賣에 관련된 것으로 그 用語法은 반드시 統一되어 있지 않으며 再賣價格, 機會原價, 出張價格(exit price), 實現可能價格(realizable price) 등의 多數의 用語가 代替의으로 使用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基本概念은 本小稿에서 論하려고 하는 現在現金等價概念에 관련된 用語로 쓰여진다.

(6) 客觀性的의 內容에 관하여는 여러學說이 있어서 간단히 統一化할수는 없겠으나 특히 現時點의 市場에 의한 證據만을 意識하고 있는것은 적은것 같다. 最近의 일반적인 傾向은 客觀性이란 柔軟性을 갖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필립스(G.E. Philips), 버어크(E.J. Burke), 비어만(H. Bierman) 등에 의하면 統計的手法을 적용하여 測定그자체의 客觀性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見解에 의하면 반드시는 現實의 證據를 필요치 않게 되며 美國公認會計士協會의 見解에서도 볼수있는 바와같이 將來의 豫測은 客觀性을 갖게 된다. Cf, G.E. Philips, "The Accretion Concept of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3, p. 22; AICPA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p. 42.

(7) Edwards & Bell, "The Theory", op. cit., p. 6.

(8) Ibid., pp. 74~80.

價値概念의 多樣性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많은 學者들에 의해서 論하여 지고 있으나 「에드워즈·벨」에 의하면 그것은 評價의 時點과 資產의 形態내지 場所라는 두 側面에서 고찰되어 18個의 價値概念이 존재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現時點에 중점을 두는 경우라도 6個의 價値概念을 생각할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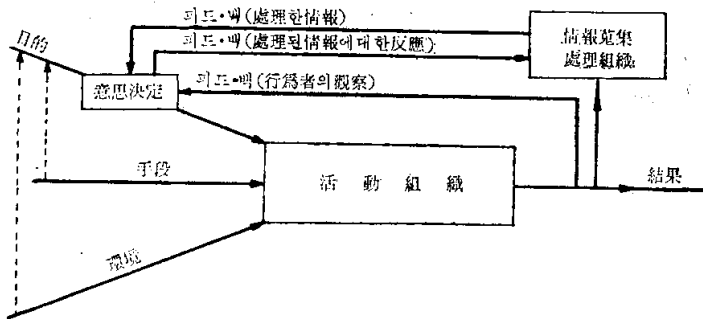
(9) Edwards & Bell, "The Theory", op. cit., p. 100.

更 또는 中止하는 것을 假定하는 概念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現存의 生産과정의 계속하는 것을 前提로한 「커런트·코스트」를 測定基準으로한 經營利益의 한 구성요소인 當期營業利益(current operating profit)은 「본질적으로 現存의 條件 밑에서 활동하게 되는 現存의 生産과정에 관련시킨 長期的인 利益이다」⁽¹⁰⁾ 라고 말한다.

요컨대 「에드워즈·벨」은 短期的으로 實現可能利益을 주장하고 長期的으로는 經營利益을 주장하여 會計情報의 이용자는 주로 繼續企業(going concern) 즉 企業의 長期的인 展望에 큰 관심을 갖는다는 根據下에 實現可能利益보다는 오히려 經營利益이 더 이상적인 概念이라고 그 採用을 提唱하고 있다. 이러한 企業觀에 관하여는 다음 節에서 다시 檢討하겠지만 繼續企業에 대한 이와같은 認識은 會計學上 一般的인 概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 「챌버스」는 正面으로 異論을 主張한다. 즉 「에드워즈·벨」이 利益을 長期短期로 區分하여 說明하는 思考方式은 根本的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¹²⁾ 그

<圖 1> 會計「시스템」簡略圖



(10) Ibid., p. 99.

(11) AAA,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The Accounting Review, Oct. 1957, p. 537.

가령 AAA는 繼續企業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繼續企業概念은 企業의 全般的 狀況의 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反證이 제기되지 않는 限 그 企業實體가 期限을 한정하는 없이 業務活動을 계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諸資產은 그 取得時에 豫定된 汎적인 用途에 대하여 계속해서 効力を 갖고 있는 것으로 期待되며 또한 諸負債는 滿期時에 償還되는 것으로 豫定되어 있다.」

(12) R.J. Chambers, "Edwards and Bell on Business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Oct. 1965, p. 734.

「챌버스」는 「우리들이 1마일을 걸으려고 한다면 最初 1步의 거리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비유하며 短期, 長期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測定基準과 利益概念을 주장하는 것은 矛盾이라고 말한다.

理由は 短期란 언제나 長期와 關聯시켜 理解하여야 되고, 長期의 期待는 短期的인 기대의 연속된 會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챌머스」의 基本思考方式은 그의 企業觀에 연결되어 一貫性있는 理解構築으로 發展한다. 이에 관하여는 後述하기로 하고 그의 會計觀을 살펴보기로 하자.

「챌머스」는 독립된 行爲者가 環境에 適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財務情報를 제공하는 수단이 會計라고 말한다. 즉 「會計란 市場에 있어서 將來의 行動을 위한 指針으로써 계속적인 財務情報의 源泉을 제공하기 위하여 考案된 하나의 貨幣計算體系이다.」⁽¹³⁾ 라고 理解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體系는 하나의 情報「시스템」으로써 <圖 1>과 같이 表示된다.⁽¹⁴⁾

또한 이 會計의 概念規定에 있어서는 將來의 行動指針이라는 것을 충분히 考慮하고는 있으나 市場의 選擇行動에 있어서는 現在市場의 財務的 事實에만 會計의 任務를 限定하고 있는 것이다. 會計가 受託責任(stewardship)의 報告나 企業資金處分の 報告라는 말하자면 株主 또는 投資家를 中心으로 한 過去의인 性格만을 갖는다는데 滿足하지 못하고 있으며 市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將來에 存在할 수 있는 市場은 고려치 않고 있다. 이것은 「챌머스」가 會計理論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現代의 會計를 意思決定 중심의 時代라고 認識하고 있는 點에⁽¹⁵⁾ 뚜렷이 나타나 있으며 意思決定의 時點的인 고려에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그러한 時點的인 고려를 도외시한다면 意思決定이라는 意味에서 內容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에드워즈·벨」을 위시한 새로운 會計의 動向과 共通性을 갖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

이와같이 「챌머스」가 行動하는데 필요한 要件으로써 會計情報를 중요시하고 있는限 우리는 그들의 「行動」에 관하여 理解를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行爲의 「시스템」이 會計의 理論構造를 形成하고 있으므로 會計情報만을 區分하여 論하는 것은 無意味할것으로 생각된다.

「챌머스」에 있어서 行動은 人間의 本質과 관련해서 분석된다. 有機的生物體인 人間은 그 體溫이라던가 各 成分이 一定한 안정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生理面에서 調整되어 진

(13) R.J. Chambers, "Measurement in Accounting", Gener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65, p. 37.

(14)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 161.

(15) Ibid., pp. 374~375.

챌머스는 會計의 發展을 다음과 같이 認識하고 있다. (a) 19世紀以前—所有經營者中心의 時代 (b) 19世紀前半부터 中葉까지—信用供與者中心의 時代 (c) 19世紀後半부터 20世紀까지—受託責任의 性格을 가진 時代. (d) 20世紀以後(특히 現代)—意思決定의 性格을 가진 時代.

다. 이것은 有機生物體로서의 人體組織이 갖는 恒常性(homeostasis)이라고 파악된다.⁽¹⁶⁾ 따라서 人間의 行動 역시 그 本質과의 관계에서 해명하게 되며 人間行動을 엄밀히 분석하는 경우 각종의 요인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現實과 理想과의 「罅」(gap)에서 일어나는 緊張(strains)을 解消하기 위한 결과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現實의 刺戟(stimulus)이 緊張을 이르고 그 緊張이 欲求를 찾게 하며 나아가서는 目標(goals)에 의해 具體化하게 된다.

따라서 行動은 目標을 달성키 위해 이루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데 目標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결과적으로 그 目標은 環境을 전제로 한 各行爲者の 價値體系(value system)에 의해서 順位가 결정되고 最終目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意味에서 目標決定은 各個人의 內面的인 心理過程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여기에서 留意할 점은 目標의 출발이 現實의 刺戟에 관계되는 環境(environment)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環境이 刺戟을 발생시켜 窮極의으로는 目標에 대하여 큰 影響을 미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한 면에서 특히 環境이 중요시되고 「環境의 관찰은 人間이 環境에 대하여 賢明한 適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知識의 根源的(primary)인 源泉이다.」⁽¹⁷⁾라고 주장된다. 이처럼 環境을 중요시하며 理論을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 「첼버스」理論은 「環境에의 適應理論」이라고 그 特色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의 環境은 아주 廣範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自然的諸事象(natural phenomena and events)만이 아니라 社會的(social), 經濟的(economic) 諸事象등의 모든것을 내포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行爲者の 狀況, 行爲者間的 相互關係, 法律制度和 慣習, 目標達成을 위한 手法·貨幣·信用에 따른 價格機構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組織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會計는 經濟的인 側面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특히 經濟組織이 중요시된다. 그런데 現代의 경제조직을 市場經濟(market economy)라고 규정하며 여기에서는 生産과 消費의 分業價格을 통한 市場에서의 交換現象이 特徵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모든 것의 生産 및 消費活動이 市場을 媒介로하여 成立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行爲者の 合理性을 前提로 한 經濟的 思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特質을 갖는 市場經濟속에서 모든 人間行動이 이루어지고 그 行動樣式은 前提가

(16)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p. 19~21.

(17) Ibid., p. 23.

되어 있는 市場의 테두리 안에서 「一定한 犧牲에서 얻을수 있는 最大의 可能的 利益」⁽¹⁸⁾을 目標로 行하여진다. 여기에서의 行動形態는 市場에 대한 最適의 適應(optimal adaptation)을 意味한다. 그 行動이 慎重度를 더하면 더할수록 「最適 適應(optimal adaptation)」의 可能性은 增大하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各種의 정보가 필요하게 되어 會計情報도 그중의 중요한 情報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고 다른 정보와 함께 情報의 根源으로 되어 있는 諸事象을 전달하는 하나의 言語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側面으로부터 言語와 情報과의 관계, 情報의 本質과 그 具備要件, 傳達上의 문제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진다.

이러한 면에 「챔버스」理論의 전부가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분명히 市場行動을 위하여 그러한 會計情報은 필요하겠으나 아무리 市場行動의 내용을 擴大시킨다고 할지라도 會計情報이 그것을 위해서만 存在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챔버스」理論은 이 觀點을 普遍化시킬려고 노력하므로써 無理를 이르지나 아니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여하튼간에 「챔버스」가 구하는 財務情報란 現時點에 존재하는 事實에 對해서 의 報告이다. 그것을 위해 會計記錄은 發生하였던 事實에 對해서 의 단순한 歷史的 記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現在의 事實을 있는 事實 그대로 즉 同型的(isomorphic)으로 그려(寫像)내며 또한 等時的(isochronic)인 表現을 할 수 있는 것으로 改善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¹⁹⁾ 이 意圖는 그러한 會計記錄만이 環境에 對한 適應行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現在의 事實에 對해서 의 眞實한 情報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같이 將來의 諸事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現在에 있어서 客觀的으로 觀察可能한 現象에 對해서만 情報로서의 資格을 인정하려고 하는 等時的(同時에 同型的)인 情報의 內容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測定基準을 중심으로 吟味하여 보기로 하자.

Ⅲ. 會計情報의 要件과 그 測定基準

情報에 있어서의 「等時性」 또한 「同型性」의 要件을 充足시켜 주기 위하여는 一般的인 의미에서의 現時的인 情報를 요청하게 된다. 이 現時的情報를 위한 測定基準에는 「에드워드·벨」의 理論을 위시하여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1966년에 發表된 美國會計學會의 「基礎的 會計理論」은 複數의 測定基準을 동시에 적용하는 多元評價의 문제를 새로운 觀點에서 示唆하고 있다.⁽²⁰⁾

(18) Ibid., p. 56.

(19) Ibid., pp. 126~128.

(20) AAA, "A Statement", 1966, op. cit., p. 73.

이 「基礎的 會計理論」에서는 情報「시스템」으로서의 會計가 指向할 目標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情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정에 정통한 知識에 의해서 그들의 判斷과 決定을 할 수 있도록 會計의 情報을 識別하고 測定하여 傳達하는 過程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有用性(usefulness)이 會計를 規定하는 最高目標로 되어 있으며 有用한 情報을 제공하기 위해서 多元評價(주로 歷史的 原價인 historical cost 와 現在代替原價인 replacement cost 의 二元的 評價)의 必要性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같은 現況에 있으면서도 現在의 情報의 내용을 규정하는 測定基準의 中核으로서 「現在現金等價額」(current cash equivalent)이라고 하는 一元的인 測定基準을 採用하고 있는 「챔버스」에게는 당연히 어떠한 論據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점부터 解明하여 가기로 하자. 「챔버스」에 의하면 會計情報의 本質은 行動과 관련하여 규정되며 그 特質은 行爲者의 疑問을 해소시켜 知識의 增大를 도모함으로써 여러 行爲者가 서로간의 商去來를 이루는 市場에서 適切한 行動을 할수 있도록 하는 財務的인 것이라고 性格지워지고 있다.⁽²¹⁾ 그러나 이 性格규정은 극히 抽象的이어서 具體性, 現實性이 희박하므로 會計情報은 도대체 어떠한 要件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究明하게 된다.

그 要件에는 客觀性·照應性·適切性·中立性·統一性·信賴性의 여섯개가 지적되고 그들은 相互間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²²⁾ 客觀性이란 기본적으로는 個人的인 判斷이나 偏見이 介入치 않을 것을 意味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具體的인 證據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된다. 그 證據는 市場에서 求하여 지고 情報은 市場의 現實과 관계하여 立證되므로써 비로소 客觀性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客觀性은 市場의 現實과의 關係에서 규정되므로 過去, 現在의 市場價格은 어느 것이나 客觀性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나 市場의 現實에 의한 證據를 갖지 않은 確率論인 推測에 의거한 것은 客觀性을 갖춘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會計目的과의 關係에서 규정된 客觀性이란 情報가 特定된 行爲者의 意圖로부터 獨立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위해 요청되어 진다.

照應性이란 市場에 있어서의 現實과 情報은 照應關係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現時點的 또는 計算時點的인 의미가 強調되어 있으므로 客觀性和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여기에 情報은 現實을 描寫한 記號(signal)로 理解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時點的인 環境과 企業實體(entity)간의 相關성이 情報로서의 公式記錄으로부터 排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21)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p. 145~146.

(22) Ibid., pp. 146~162.

適切性이란 情報은 行動目的에 대하여 適切하다는것, 다시 말해서 行動目的과의 관련성을 구하는 要件이다. 그 內容으로는 特殊的適切性(particular relevance)과 一般的適切性(general relevance)을 생각할 수 있으나 「챌버스」는 一般的適切성을 要件의 內容으로 선택한다. 그 根據로는 特定된 行動은 行爲者자신만이 알 수 있고 情報蒐集處理者가 관계할 바가 못된다는데에서 구하고 있다. 이것은 特定된 行動에 대한 適切性이 行爲者자신의 行動選擇時의 評價問題라고 보기 때문이다.

中立性이란 情報가 特定된 行動目的 또는 特定된 行爲者로부터 獨立되어 있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要件은 適切성에 있어서 一般的適切성이 요청되어 있었던 것과도 밀접히 관계하여 그 基盤을 이루었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종래의 利害關係者중심의 會計로부터 參加者의 協同體로서의 「엔티티」(企業實體)중심의 會計에로 進展시키려 한것으로서 會計의인 側面에서 보면 「엔티티」 그 自體를 獨立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 活動을 中立의인 입장에서 觀察하여 無色透明한 情報의 特色으로 삼으려고 意圖한 것으로 理解된다.

統一性이란 會計「시스템」, 情報處理「시스템」에 있어서 統一性を 요청하는 것으로서 具體的으로는 會計處理方法이나 報告樣式에 있어서의 統一性を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行動을 위한 情報에 대하여 比較性和 理解可能性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意義를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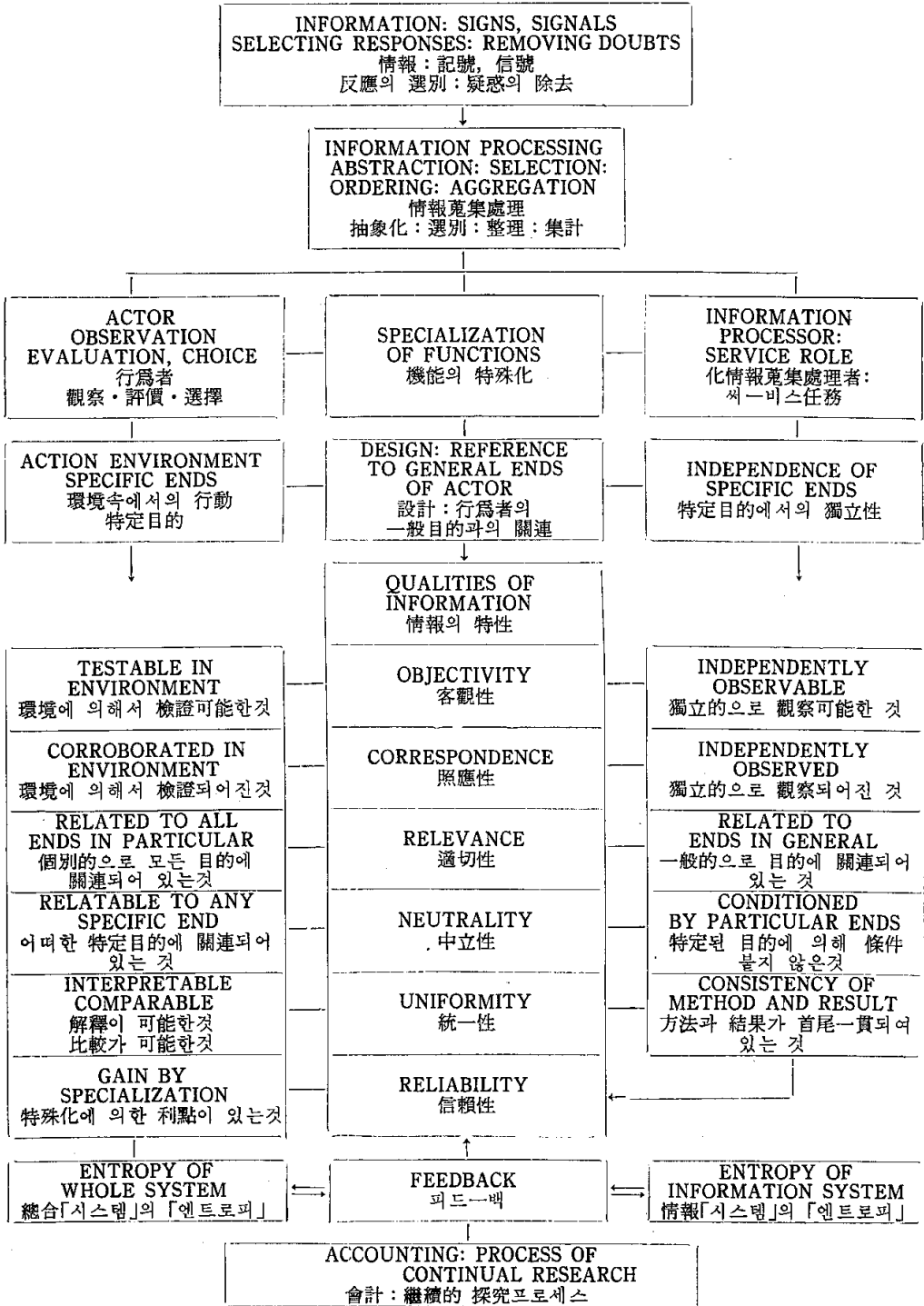
끝으로 信賴性이란 情報를 信用할 수 있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며 特히 情報은 市場과 연결되어 記錄의 대상이 되어 있는 現實을 정확히 反映하고 있다는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면에서 照應性和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동시에 情報蒐集處理者의 機能과 能力을 檢證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以上이 「챌버스」가 주장하는 情報의 具備要件의 內容이며 이러한 要件을 충족시킨 것만이 有用한 情報라고 規定된다. 이것들의 相互關係를 나타낸것이 <圖 2>에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챌버스」는 會計情報가 갖고 있어야 할 性質이 무엇인가의 說明으로부터 시작하여 會計의 時間的인 範圍를 규정하고 具體的인 評價, 測定의 문제를 해명하여 간다.

一般的으로 時間의 흐름은 過去・現在・未來의 세가지 部分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會計에 있어서도 그에 따라 對象範圍를 규정할 수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會計計算은 過去에 중점을 둔 回顧計算(retrospective calculation)과 過去를 돌이켜 보며 現在에 중점을 두는 繼續的・現時點計算(contemporary calculation) 및 將來의 期待值에 중점을 두는 豫測計算(anticipatory calculation)의 세가지로 分類된다.

〈圖 2〉 情報와 情報蒐集處理의 關係



回顧計算의 特質을 環境의 變化 여하에 關係없이 過去에 이러한 「엔티티」의 經濟狀況을 回顧함으로써 記錄, 計算을 하는데 있다. 이 方法에 의한 會計情報은 環境의 變化가 없는 限 行動을 위한 資料로서 要件을 충족시킬 수 있겠으나 일단 環境에 變化가 있게 되면 現時點의인 의미를 잃게 되어 行動을 위하여 有用한 情報가 될 수 없으므로 適切性의 基準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豫測計算은 現時點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將來의 事實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假定的, 主觀的인 特質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事實의 記錄, 計算이 될 수 없으므로 이 計算方法으로부터 나타나는 情報도 역시 假定的, 主觀的 性格을 갖게 되어 客觀性의 要件 및 照應性의 要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計算方法이 行動을 위한 會計情報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有効性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 반하여 繼續的・現時點計算은 回顧的인 資料에 기반을 두면서 그것을 環境의 變化에 따라 修正하는 것을 特色으로 삼는다. 그결과 回顧計算에서 볼 수 있었던 現時點의인 不照應性이 극복되고 다른 한편 豫測計算에 있어서의 客觀性 및 照應性의 결함도 극복할 수 있다. 그 情報은 현실의 環境을 일관성있게 반영함과 아울러 環境과의 關係에서 충분한 證據에 의한 客觀性을 확보하게 되어 行動의 指針을 나타내는 情報로서 가장 適切한 것이 된다.

이와같이 行動을 위해 有用한 會計情報를 제공하는 計算方法으로서 現時點의 環境과 固게 결합된 繼續的・現時點計算이 勸告되어 진다. 그러므로 回顧的側面에 중점을 두는 종래의 取得原價主義會計 및 「비어만」(H.Bierman Jr.)에 의하여 主張되는 經濟的資源의 價値評價에 있어서의 期待收益에 의한 평가는 否定된다.⁽²³⁾ 「챔버스」가 期待值를 기초로 한 會計를 부정하는 것은 豫測과 測定과를 명확히 구별하여 豫測를 行爲者에게 맡기고 測定을 情報蒐集의 處理者에게 關係시키며 또한 測定의 結果를 行動의 事實的前提(factual premise)로 두고 있는데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現在의 市場經濟는 貨幣를 交換手段으로한 價格機構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特質에서 貨幣計算이 모든 사람들에게 不可缺한 것으로 되며 貨幣計算이 最大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貨幣計算이 行動과 밀접한 關係에 있는 것을 뜻하고 貨幣를 떠나서는 行動이 存在치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貨幣와 行動이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음에 따라 行動을 規制하는 行動能力(the capacity to operate) 역시 貨幣와의 關係로부터 규정지워진다.

(23) Harold Bierman Jr., "Measurement and Accounting", Accounting Review, July 1963, p. 505.

그 行動能力은 행동시점의 市場에 있어서 交換能力을 의미하게 되므로 具體的으로는 貨幣保有額에 의해서 표시된다. 따라서 行動能力은 時點的인 色彩를 띠우고 있으므로 會計的으로는 貸借對照表에 표시되는 財務狀態에 상당하는 것이며 그것을 貨幣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복잡한 經濟社會의 모든 企業實體는 貨幣的인 資產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在庫資產, 固定資產 등의 非貨幣的인 資產을 保有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을 貨幣金額으로 表現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그 資產들은 제 값에 상당한 現金等價額으로써 表示된다. 이와같이 財務狀態는 現金等價額으로써 종합적으로 표시하게 되고 行動을 위하여는 그 時點의 現金等價額으로 나타난 財務狀態가 기본적인 정보로써 규정된다. (24)

또한 그 情報가 행동시점의 行動能力(즉 市場의 適應能力)을 나타내는 視點에서 資產性이 규정되어 分離可能性(severability), 換金性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그 資產性이 부정되어 진다. 이에 따라 종래의 會計理論에서는 資產性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營業權(goodwill)이나 移延資產등은 資產性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가령 營業權은 企業을 全體로서 評價하였을때 생기는 無形의 超過收益力을 나타내므로 그 自體를 分離하여 會計處理하기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25)

더욱이 現在現金等價額에 의한 情報와의 관련으로 부터 機會原價 또는 再賣價格을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두개의 다른 市場價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計算時點의 調達價格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賣却價格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에드워즈·벨」이 말하는 「커런트·코스트」와 「오포튜니티·코스트」(機會原價)의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겠는데 「챔버스」는 機會原價만이 기본적인 測定基準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

여기에서의 機會原價란 適應行動을 위하여 利用할 수 있는 資金의 發見이며 現在의 機會를 선택하기 위하여 잃은 資金量에 의해서 現存資產의 價値를 算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現存企業이 利用 가능한 貨幣資金을 얼마나 갖는가에 중점이 놓여 있고 또한 가장 有利한 事業機會를 구하여 部分的으로 事業을 轉換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와같은 意味에서는 「에드워즈·벨」에 의한 機會原價는 清算(liquidation)을 가정한 短期的인 것이며 「커런트·코스트」는 現存의 生産過程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한 長期的인 測定基準이라고 展開한 理論과는 분명히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轉換의

(24)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 101, p. 112.

(25) Ibid., pp. 209~212.

(26) Chambers, "Edwards and Bell", op. cit., pp. 734~736.

假定이 바로 곧 清算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企業活動의 전환은 즉시 전반적으로 進行되는 것은 아니며 도리혀 部分的으로 進行되는 것이 繼續企業의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보면 轉換의 假定은 繼續企業의 가정과 대립되는 概念이 아니라全體로서의 企業활동 즉 繼續企業의 한 形態이며 繼續企業의 가정과 대립되는 것은 全面的인 清算의 가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첼머스」는 「繼續企業이란 기업이 장래를 向하여 存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나 동시에 그것은 強制下에서가 아니라 通常의인 營業活動(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의 전제하에서 所有在庫資產을 清算하는 것이다.」⁽²⁷⁾라고 在庫資產의 測定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思考는 전체적인 會計處理에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結局 「첼머스」理論은 繼續企業이란 前提아래 언제나 有利한 方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柔軟性있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에드워드스·벨」이 주장하는 「커런트·코스트」가 아니라 機會原價(즉 再賣價格)만이 資產의 正當한 測定基準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같이 繼續企業을 理解하는 것은 行動과의 관련하에서 時點의인 環境이나 市場의 변동에 착안하는 것을 意味하며 환경에 대하여 柔軟性있게 對處할 수 있는 可能性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첼머스」에 의하면 機會原價는 기업의 중요한 原價概念이기는 하지만 이 結論을 맺음에 있어서 하나의 原則으로서 「어떠한 理由로 인하여 市場에 있어서 再賣價格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그의 近似值(approximation)으로써 購入價格을 適用하는 것은 不合理한 것이 아니다.」⁽²⁸⁾라고 말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便宜의으로 採用되는 方法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 一元的인 測定基準에 의한 會計處理가 無理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 점은 다음節에서 個別的인 測定基準으로 在庫資產을 論함에 있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하튼 이들 兩者의 주장에 있어서는 現實的인 企業의 把握이나 繼續企業의 內容規定의 方法이 근본적으로 相異한 것을 기초로 하여 서로 다른 測定基準 및 異質的인 利益概念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理解된다.

(27)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 232.

(28) Chambers, "Edwards and Bell", op. cit., p. 736.

IV. 物價水準變動과 利益測定

前節에서는 現在現金等價額이라는 현재의 財務情報의 基礎概念을 고찰하였는데 繼續企業의 前提는 그 內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解明되었고, 또한 財務情報는 이를 基礎로해서 보다 현실적인 理論으로 展開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다음에는 市場이라는 환경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物價變動이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 測定體系안에 짜여져 어떠한 利益概念을 이루게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자.

現在現金等價額으로 나타낸 財務狀態만으로는 期間內的 變動額, 變動內容 및 變動의 方向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만족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들의 內容을 파악한다는 것은 行動을 하는데 큰 意義를 갖게 되므로 당연히 期間損益計算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그 具體的인 計算方法이 고안되고 現金等價概念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데서 損益計算역시 그것과의 관련아래 결정되며 이 計算에서 결정되어지는 利益概念도 同一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즉 利益(또는 損失—以下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 利益으로 表示하기로 한다)은 期初와 期末의 現金等價額에 의해서 測定된 殘餘持分(residual equity)의 差額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損益計算에 의한 利益決定을 하고는 있으나 「여하한 時點에 있어서나 財務狀態는 行動의 基礎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損益計算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財務狀態를 나타내는 貸借對照表가 第一義的地位에 놓여 있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의미는 「챔버스」가 利益概念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理論이라고 「에드워즈·벨」의 見解를 批判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단의 現時點의인 知識은 선택에 있어서 첫째의 필수조건이 된다. 그것은 期待와 장래의 行動을 行함에 있어서 쌍방에 대한 현실적인 基礎를 제공한다.」⁽³⁰⁾고 말하고 있는 事實에서도 엿볼수 있다.

그러므로 「챔버스」의 見解는 傳統的인 取得原價主義에 있어서의 會計理論과 같이 損益計算書를 중요시하고 貸借對照表를 連結環으로 보는 構造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챔버스」理論에 있어서 貸借對照表를 중시하는 程度는 貸借對照表를 重視하면서도 언제나 損益計算書와의 關係를 고려하여 두 財務諸表를 동등한 지위에 놓고 있는 美國公認會計士協會에서 발표한 研究叢書의 見解보다도 더욱 強調되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³¹⁾

(29)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112.

(30) Chambers, "Edwards and Bell", op. cit., p.734.

(31) AICPA,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p.5.

무닛즈(M. Moonitz)와 스프라우스(R.T. Sprouse)는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關係에 관하

「챔버스」는 繼續的・現時點計算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測定基準을 적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市場의 實際價格(actual price)을 理想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實際價格의 적용은 市場의 稀薄性 또는 經濟性등의 관점에서 便宜的인 것으로써 그가격의 近似值인 物價指數의 사용을 주장한다.⁽³²⁾ 이 物價指數를 적용하는 경우에 物價指數作成上의 標本抽出 및 加重值(sampling and weighting)에 대하여는 正確性和 信賴性的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 自然科學에서 볼수있는 測定的 正確性和 비교되어 批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챔버스」는 自然科學의 경우 그 數値는 절대적인 正確性을 갖고 있는것 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상은 그렇지 못하며 거기에는 언제나 誤差를 찾아볼 수 있고 社會科學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다. 결국 그 正確性은 정도의 문제이며 限界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物價指數를 作成함에 있어 그 결함을 容認하게 된다. 이 近似值의 採用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會計上의 測定에 있어 正確性的의 문제는 단지 實踐目的을 위하여 有用한 正確性的의 정도를 발견하는 문제이다.」⁽³³⁾라고 말하고 있는것 처럼 測定 그자체의 正確性보다는 目的에 대한 適合性이 언제나 優先하여 있다고 생각된다.

以上の 前提아래 「챔버스」는 市場에서 일어나고 있는 一般物價 및 個別物價(챔버스는 相對物價 relative price 라 부르고 있음)의 變動을 測定體系가운데 반영시키는 경우 (1) 전혀 物價變動이 없는 상태(定常狀態)와 (2) 物價變動이 있는 상태(非定常狀態)로 구분하여 分析한다.

定常狀態에 있어서 利益測定體系는 두 개의 時點인 期初와 期末의 資產이 現金, 受取債權, 在庫資產(short-term inventories 短期在庫資產) 및 固定資產(durables inventories 耐久在庫資產)으로 이루어지고 持分(equity)은 負債에 속하는 支拂計定과 自己資本을 意味하

여 「經驗上으로든지 또는 抽象的인 分析의 結果에 依하든지간에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어느 한쪽을 強調하여 다른편을 實質的으로 排除하려고 試함은 반드시 滿足할수 없는 結果를 가져온다는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수 있다. 兩쪽의 어느쪽이던 서로 互립하여서는 存在할수 없다.」고 말하며 兩者를 밀접히 關連시킨 位置에 올려놓고 同等한 地位를 부여하고 있다.

(32)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 229.

一般物價指數로는 消費者物價指數(a index of consumers' goods prices)를 提唱한다. 그 理由는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다. (a) 모든 生産 및 販賣活動은 窮極的으로 消費者를 위한 財貨를 供給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企業의 將來에 있어서의 活動은 그 價格을 기초로 行하여 진다는 것. (b) 企業의 出資者에 대한 役割은 그들에게 所得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所得이 얼마큼 投資될 것인가는 알수 없겠으나 消費되는 部分은 분명히 消費者物價指數에 關계시키는 것이 妥當하며 또한 投資될 部分도 (a)의 理由에 따라 消費者物價指數가 妥當하다고 主張된다.

(33) Chambers, "Measurement", 1965, op. cit., p. 45.

는 殘餘持分으로 구성된 企業을 想定한다. (34)

이 경우에 現金, 受取計定 및 支拂計定은 모두 帳簿價格에 따라서 測定된 貨幣項目이라 하며 또한 現金과 受取計定の 測定額의 合計와 支拂計定の 測定額과의 差額은 正味貨幣項目(M)이라고 하자. 그리고 在庫資產과 固定資產의 測定額의 合計는 非貨幣項目(N)이라 하며 正味貨幣項目과 非貨幣項目의 合計額이 殘餘持分(R)을 의미한다고 하자.

이러한 想定아래 期初(t_0)와 期末(t_1)의 財務狀態를 나타내면 $M_0 + N_0 = R_0$, $M_1 + N_1 = R_1$ 이 된다. 그리하여 期初와 期末사이에 資本의 拂入 및 引出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期間의 利益은

$$\begin{aligned} (R_1 - R_0) &= (M_1 + N_1) - (M_0 + N_0) \\ &= (M_1 - M_0) + (N_1 - N_0) \end{aligned}$$

라고 하는 等式에 의해서 표시된다.

繼續인 記錄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時點에서 資產, 負債의 測定額을 얻을 수 있으므로 當期間中の 貨幣項目에 대한 增減高와 非貨幣項目에 대한 增減高와의 合計로부터 殘餘持分の 增減高, 즉 利益을 다음과 같이 구할수 있다.

먼저 非貨幣項目을 在庫資產(I)와 固定資產(D)으로 分割하여 當該期間中에 있어서 在庫資產의 賣却에 따른 貨幣收入을 MRI, 購入에 따른 貨幣支出을 MPI 라하며 또한 固定資產의 賣却에 따른 貨幣收入을 MRD, 購入에 따른 貨幣支出을 MPD 라고 한다면 當該期間中에 있어서 貨幣項目의 增減高는

$$(M_1 - M_0) = (MRI + MRD) - (MPI + MPD) \dots\dots\dots(1)$$

또한 在庫資產의 期初 및 期末에 있어서의 測定額을 各各 I_0Q_0 , I_1Q_1 이라 하고 固定資產의 各各을 D_0Q_0 , D_1Q_1 이라고 한다면 非貨幣資產의 增減高는 다음과 같이 된다.

$$(N_1 - N_0) = (I_1Q_1 - I_0Q_0) + (D_1Q_1 - D_0Q_0) \dots\dots\dots(2)$$

따라서 (1)式 및 (2)式으로 부터 殘餘持分の 增減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

$$\begin{aligned} (R_1 - R_0) &= (MRI - MPI + I_1Q_1 - I_0Q_0) \\ &\quad + (MRD - MPD + D_1Q_1 - D_0Q_0) \end{aligned}$$

이경우에 固定資產의 期末價格은 그 時點에 있어서 再賣價格에 의하여 測定된 것이며 固定資產의 $(D_1Q_1 - D_0Q_0)$ 는 期間中에 購入, 賣却이 없었을 경우의 減少額 즉 減價償却額을 나타내고 있다.

(34)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p. 221~223.

以上은 物價變動이 전혀 없을 경우의 計算體系인데 그 測定基準으로는 앞서 論한바 있는 現在現金等價額(즉 再賣價格)이 採用되고 있으며 이 價格은 物價變動이 있을 경우에도 同一하게 適用된다. 따라서 固定資產의 測定에 있어서 固定資產의 全體를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再賣可能한 部分의 集合體로 생각하면 그 價格(現在現金等價額)을 測定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이므로 一般的인 測定基準으로 再賣價格이 採用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在庫資產에 있어서는 그 測定에 관하여 문제점이 介在하고 있다. 즉 在庫資產의 경우 再賣價格基準이 아니고 「커런트·코스트」基準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在庫資產은 原則적으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資產이기 때문에 一般的測定基準인 再賣價格의 적용이 가장 適合할 것같이 생각되나 「첼버스」에 의하면 이들 販賣資產의 再賣價格에는 通常利益(profit margin)을 포함하여 형성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通常利益에 상당하는 部分은 資金의 投下와 回收(販賣)사이의 待機時間(waiting) 또는 危險(risk)의 負擔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販賣를 하게 되는 時點까지 利益에 상당하는 部分은 最終적으로 企業에 의해서 稼得되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不確實性에 따른 위험을 가져오는 期待價格部分에 상당한다.

따라서 그 期待價格部分을 豫測하여 計上할 수는 없으므로 再賣價格에서 利益部分을 控除해야 하고 그에 따른 測定基準이 選擇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製品을 構成하는 要素의 「커런트·코스트」에 의한 測定을 선택하게 된다.

더우기 「커런트·코스트」에 따른 測定은 機會原價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論證된다. 즉 「커런트·코스트」는 計算時點에 있어서 企業이 그 製品을 保有하고 있지 않으면 保有하기 위하여 필요한 金額에 상당한다. 그러므로 「커런트·코스트」는 「當該製品을 購入한 時點에서 이미 이루어진 意思決定時點의 機會原價를 나타낸다.」⁽³⁵⁾ 라고 機會原價의 見地로부터 그 根據를 구할려 하고 있으나 現時點에 중점을 두면서 意思決定의 時點으로 다시 逆行하여 測定値를 규정할려는 意圖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것 같다. 이 點에는 若干의 문제들이 제기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들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첼버스」는 個別的인 測定基準으로써 在庫資產에는 「커런트·코스트」를 적용하고 固定資產에는 再賣價格을 採用하게 되지만 固定資產의 測定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1) 賣買單位를 어느 程度로 할것인가, (2) 價格을 여하히 하여 入手할것인가, (3) 賣却不能資產(non-vendible durables)의 取扱이란 세가지가 문제이다.

(1)의 문제에 대하여는 市場과의 관계로 言及하고 있으며 반드시 明確하지는 못하나 企

(35) Ibid., p. 232.

業의 性格을 변화시키는 일없이 賣却할 수 있는 最少의 單位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2)의 문제에 대하여는 中古市場(secondhand market)에 그 基盤을 구하고 있으나 同一資產의 활발한 中古市場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곧 解決되겠지만 그것이 存在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를 남긴다. 이에 대하여 技術的으로 同一하다고 간주되는 資產의 價格을 近似值로 채용하는 것도 可能하다고 말한다. (3)의 賣却不能資產에 관하여는 事實상 그 資產性을 否定하여 正規的인 會計記錄의 대상으로부터 除外하여 脚注등에 의한 補完的인 記錄을 提唱하고 있다. (36)

다음으로는 非定常狀態에 있어서의 測定의 問題를 살펴보기로 한다. (37) 物價變動은 一般物價變動과 個別物價變動의 두 側面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1) 一般物價의 變動만이 일어나는 경우 (2) 個別物價(相對物價)의 變動만이 일어나는 경우 (3) 兩者가 同時에 併存하여 일어나는 경우의 세가지 狀態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種類의 物價變加이 個別的으로 獨立하여 존재하는 (1)과 (2)의 경우는 극히 드물고 두 種類의 變動이 同時에 混合되어 서로 다른 變動을 나타내는 경우가 一般的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 「 챔버스 」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貨幣項目(M) 및 두 종류의 非貨幣項目(N' 및 N'')을 保有하고 또한 期間중에 전혀 去來가 없었던 靜的企業을 想定한다. 이때 期初의 財務狀態는 $M+N'+N''=R$ 로 된다.

또한 期間중에 一般物價는 P 만큼 變動하고 두 種類의 非貨幣項目에 있어서의 相對物價는 各各 g, r 만큼 變動하였다고 한다면 期末의 財務狀態는 우선 一般物價의 變動에 의해서

$$M+N'(1+p)+N''(1+p)=R(1+p)-MP$$

$$\left(\begin{array}{l} \because M(1+p)+N(1+p)=R(1+p) \\ M+N(1+p)=R(1+p)-Mp \end{array} \right)$$

로 되고 相對物價의 變動을 加味하면

$$M+N'[(1+p)+(g-p)]+N''[(1+p)+(r-p)]$$

(36) Ibid., p. 244, p. 259

賣却不能資產(non-vendible durables)의 記錄方法으로는 (1) 購入時에 支出額을 直接 殘餘持分에서 減少시키며 그후는 貸借對照表의 脚註에 그 資產의 存在를 備忘的으로 明記하는 方法 (2) 備忘計定을 貸借對照表의 付錄으로 作成하여 그곳에 支出額 및 殘餘持分の 等價部分을 記入하는 方法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두가지 方法을 兼용하여도 좋다고 한다.

(37)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op. cit., pp. 223~227.

$$= R(1+p) - Mp + N'(g-p) + N''(r-p)$$

로 된다. 이를 다시 整理하면

$$\begin{aligned} & M + N'(1+g) + N''(1+r) \\ & = R + Rp + [N'(g-p) + N''(r-p) - Mp] \end{aligned}$$

이 等式에 있어서 $R + Rp$ 는 殘餘持分에 대한 一般物價에 의한 修正額인 資本維持修正部分이며 損益을 意味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N'(g-p) + N''(r-p)$ 는 一般物價의 변동과 個別資産의 價格變動의 差額인 個別價格의 修正部分(保有損益)이며 企業의 損益을 構成한다. 또한 Mp 는 貨幣項目이 帳簿價格에 의해서 測定되어지므로 貨幣單位의 디멘션(dimension)의變動에 의한 損益 즉 貨幣的資産의 保有損(益)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企業의 損益의 合計는 $[N'(g-p) + N''(r-p) - Mp]$ 로 이루어진다.

以上은 「챌버스」가 말하는 극히 單純化된 損益計算體系이다. 「챌버스」는 이에 끝내지 않고 期間중에 去來를 行하는 動的企業의 복잡한 計算體系에 關해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基本的인 特徵은 期初와 期末의 二時點에 있어서 「엔티티」의 所有財産의 比較方式에 의한 損益計算에 重點이 놓여 있으며 費用과 收益의 對應方式이란 期間의 思考에 따른 損益計算이 後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基本的인 特徵을 갖는 測定體系의 具體的인 內容에는 (1) 一般物價變動과 相對物價變動의 影響을 貨幣項目과 非貨幣項目으로 구분하여 把握하려하고 있으며 貨幣項目에 대한 一般物價變動의 影響은 保有損益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非貨幣項目에 대한 影響은 단지 名目的修正에 불과하므로 損益計算의 基礎가 되는 殘餘持分の 修正으로 보고 있으며 (2) 損益의 內容은 正味貨幣項目에 대한 一般物價變動에 따른 影響額과 非貨幣項目에 대한 相對物價變動에 따른 影響額으로 부터 構成되어 있다는 特徵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特徵을 資本概念과 關係시켜 보면 維持하여야 할 資本은 殘餘持分을 一般物價에 의해서 修正한 金額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資本維持는 個個의 資産을 物財的으로 維持한다는 會計上의 目的이 아니라 損益計算과의 關係에서 財政狀態의 變化를 測定한다는 基礎로서만 意義를 갖는다. 따라서 「챌버스」理論은 相對物價의 變動에 대하여 再賣價格을 채용하고 利益의 數値를 修正하는 경우에 한해서 一般物價에 의한 資本修正을 하게 된다. 以上에서 말한 計算體系를 더 쉽게 理解하기 위해 한 例를 들어 보기로 하자.

一般商品價格이 騰貴하더라도 商品에 따라 價格이 上下로 變化하는 것이 있고 또는 그 대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러한 變化가 종합된 結果로써 期初와 期末사이에 貨幣의

一般購買力은 上下로 변하게 되므로 年度初에 당초의 金額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購買力을 年度末에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資本維持修正(capital maintenance adjustment)을 하게 된다. 이 金額은 一般物價指數의 變動率을 殘餘持分에 대한 期初의 數值에 乘하여 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가령 殘餘持分(正味資產)의 金額이 期初에 1億원, 期末에 1億 4,000萬원으로 이들은 그 時點의 資產價格에 의해서 計算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4,000萬원의 增加는 傳統的인 會計方法으로 計算된 收益과 費用의 差額 3,500萬원과 特定資產의 期末價格이 騰貴한 것에 대한 資產計定の 修正分이 500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一般物價指數는 이 年度에 8% 上昇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에 資本維持修正은 1億원의 8%인 800萬원이 되고 이 800萬원은 4,000萬원의 增加分에서 控除하게 되므로 이 年度의 純利益은 3,200萬원이 된다. 그리하여 殘餘持分計定の 한 項目인 資本維持修正計定에 800萬원이 貸方記入되어 그 결과 年度末의 財政狀態는 그 時點의 資產價格에 의하여 또는 同一한 購買力을 갖는 元貨에 의하여 報告하게 되고 또한 純利益의 數值도 同一한 購買力의 元貨로 表示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財務諸表이던 간에 最新의 會計情報에 의해서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V. 結 論

以上에 있어서 現在의 情報을 規定하는 「챌머스」의 賣却時價主義의 提言과 그 理論構成에 있어서 다른 方向으로 分岐되는 「에드워즈·벨」의 購入價値基準에 대한 理論을 比較하면서 考察하여 왔다. 그들은 現代의 會計學을 意思決定의 中心課題라는데 共通性을 가지면서도 一般의 測定基準으로는 異質된 時價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 差異는 企業에 대한 基本的인 見解에 있어서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어떠한 歡點에서 接近할 것인가의 問題이기도 하였다.

여하튼 그들의 理論은 종래의 會計理論에서 찾아 볼수 없는 特徵을 갖고 있었으며 興味 있는 問題들을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챌머스」理論은 요즘 論議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會計情報「시스템」의 내용인 會計情報의 性質을 규정함에 있어서 環境의 適應理論을 일관성있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會計「시스템」의 體系를 提示하고 있다. 이 理論에서는 다른 理論과 比較하여 볼때 몇가지의 顯저한 特徵을 엿볼수 있다.

그 特徵이란 (1) 隣接된 諸科學의 成果를 충분히 받아드려 「接近方法」의 用具로서 「인

더·디시프리나리」의 方法이 意識的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것, (2) 會計와 人間行動과의 關係를 重要시하여 會計는 그 行動하는데 필요한 現時點의 情報를 提供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되어있다는 것, (3) 會計情報는 事實을 그려내는 一種의 「시그널」(signal) 또는 言語(language)로써 파악하며 會計를 하나의 「피드·백」을 갖춘 情報「시스템」으로 理解하므로써 會計學의 一般理論을 一元的으로 形成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챔버스」理論은 릿틀톤(A.C. Littleton)의 批判에서 典型的으로 볼 수 있는바와 같이⁽³⁸⁾ 전통적인 取得原價主義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視點에서 個別物價 變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理論을 構築하고 있다는데 異論은 없겠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챔버스」는 期待 또는 豫測의 要素의 도입을 극단히 피하여 現在割引價値라는 豫測에 따른 經濟學的價値가 否定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減價償却計算에 있어서의 耐用 年數라는 見積마저도 否定하며 現在의 市場에서 確證을 얻을 수 있는 市場價格에 의한 測定만을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現在의 市場價格을 最終的으로 적용하면서도 언제나 豫測 價値와의 關係를 생각하며 減價償却計算上의 耐用年數의 見積을 容認하는 「에드워즈·벨」理論과 다른 點이기도 하다. 또는 가장 客觀性을 重視한다고 하는 取得原價主義會計와도 減價償却計算의 面에 있어서 달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極度로 客觀性을 重要시한 現時點의 會計정보의 제공을 展開하고 있는 會計理論을 여하히 해석할 것인가는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챔버스」理論의 財務狀態를 중시한 市場適應의 假定은 一般性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批判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技術的으로는 現在의 市場價格을 찾을 수 없는 試驗研究開發費 등의 支出을 資產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든가 또는 固定資產의 市場價格을 일률적으로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등 여러가지의 批判이 可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批判은 실제로 여러 側面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챔버스」理論은 충분히 檢討되어 지므로써 비로서 正當한 評價가 내려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 筆者의 知識으로는 會計가 提供하는 情報를 現在의 것에 限定한다면 많은 無理가 생겨 滿足할만한 것이 못될 것으로 여겨진다. 過去의 會計情報이던 未來의 會計情報이던 간에 現在의 時點에서 그 情報의 利用目的에 「適切한」(relevant)것이라면 同質의 情報로서 必要한 操作(operation)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論文은 1971. 10. 23 熱海雙柿舍에 있었던 早大 會計研究會에서 發表한 것에 加筆한것임)

(38) R.J. Chambers, "Some Observations 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Oct. 1956, pp. 585.